

'97 정보통신활성화 촉진 세미나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충남 도고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후원으로 '97 정보통신 활성화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 세미나에서는 서영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의 기조연설과 삼성SDS 김종환 상무의 21C 정보통신기업의 과제, 김기열 한국통신 사업협력국장의 통신사업자간 상호협력 확대방안, 김치동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의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둘째날에는 차양신 정보통신부 과장의 부가통신사업 활성화 정책 방향, 한국통신의 부가통신망의 상호 접속과 설비제공, PC통신사업자를 위한 ACIPS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발표, 이상오 아이네트 이사의 PC통신 /Internet사업 활성화 방안, 류필계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의 별정통신사업의 영역과 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오갑석 테이콤 본부장이 공중망과 별정통신망의 접속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대학교 최홍식 교수가 별정통신사업의 사업성 및 전망과 김교덕 LG-EDS시스템 본부장의 별정통신사업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통신의 '98 한국통신의 네트워크 제공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어서 부가통신과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차시험 실시

우리협회는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차시험을 11월 5일 00:00부터 11월 7일 24:00 사이에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총 접수인원 5,456명 가운데 4,670명이 응시하여, 85.6%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들 응시자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자 편리한 장소에서 PC를 통해 우리협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에서 출제된 4지선다형의 40문항으로 된 문제를 60분간 풀었다.

평균점수는 72.8점이고, 합격자는 총 4,001명으로 85.7%의 합격률을 보였다. 2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 21일 14:00부터 15:00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치루어질 예정이다.

해외 유관단체와 국제협력 추진

우리협회는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관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 협력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국내 정보통신업체가 시장개방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외진출 및 해외업체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유관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하고 11월초에 20여개국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밖에도 해외 유관단체들과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회원사들이 지정한 국제업무 담당자들에게 E-MAIL을 통해 관련정보와 협회 국제협력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각사 해외 사업현황

및 국제관계 논의사항에 대하여 협회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의견, 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회원사간의 해외업무를 위한 공동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EC 추진전략 세미나

우리협회의 한국EC협의회에서는 국내 EC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도출하고 산업육성 방안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실시, 그 결과를 분석,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조사연구결과의 발표 및 EC 관련 국내 주요기관의 동향과 EC 사업추진 전략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전산원의 김은 팀장의 EC개념 및 현황과 향후과제, 동국대 황경태 교수의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 한국통신 한현배 부장의 한국통신의 SET 구현계획, 금융결제원 박홍희 실장의 국내 금융기관의 EC 참여방안, 대흥기획 강현구 부장의 EC 구현과정과 실례 및 EC 이용의 마케팅 전략, 김갑수 사무국장의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상산업부 이동근 과장의 전자상거래 국제동향과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정경원 과장의 정보통신부의 전자상거래(CALS/EC) 정책방향, 중소기업청 장흥순 과장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5회 국제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

우리협회는 지난 11월 6일 과총회관에서 제5회 국제 정보통신산업전망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정보통신업체 임직원 및 각 분야별 제조업체 EC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EC협의회의 손완수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날 심포지움에는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WTO 이후의 정보통신 정책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